

건축가 유주현

좋은 건축의 시작

ESSAY

여행과 건축가의 성장

TRAVELING & VIRTUES OF AN ARCHITECT

WORKS

판교522 단독주택

PANGYO BRICK WOVEN HOUSE

PROJECT

통인동 스튜디오 하우스

TONG-IN STUDIO HOUSE

판교6441 점포주택

PANGYO BRICK CARPET HOUSE

INTERIORS

구의동 아파트 인테리어

BIRCH HOUSE

루미에 클리닉

LUMIE CLIN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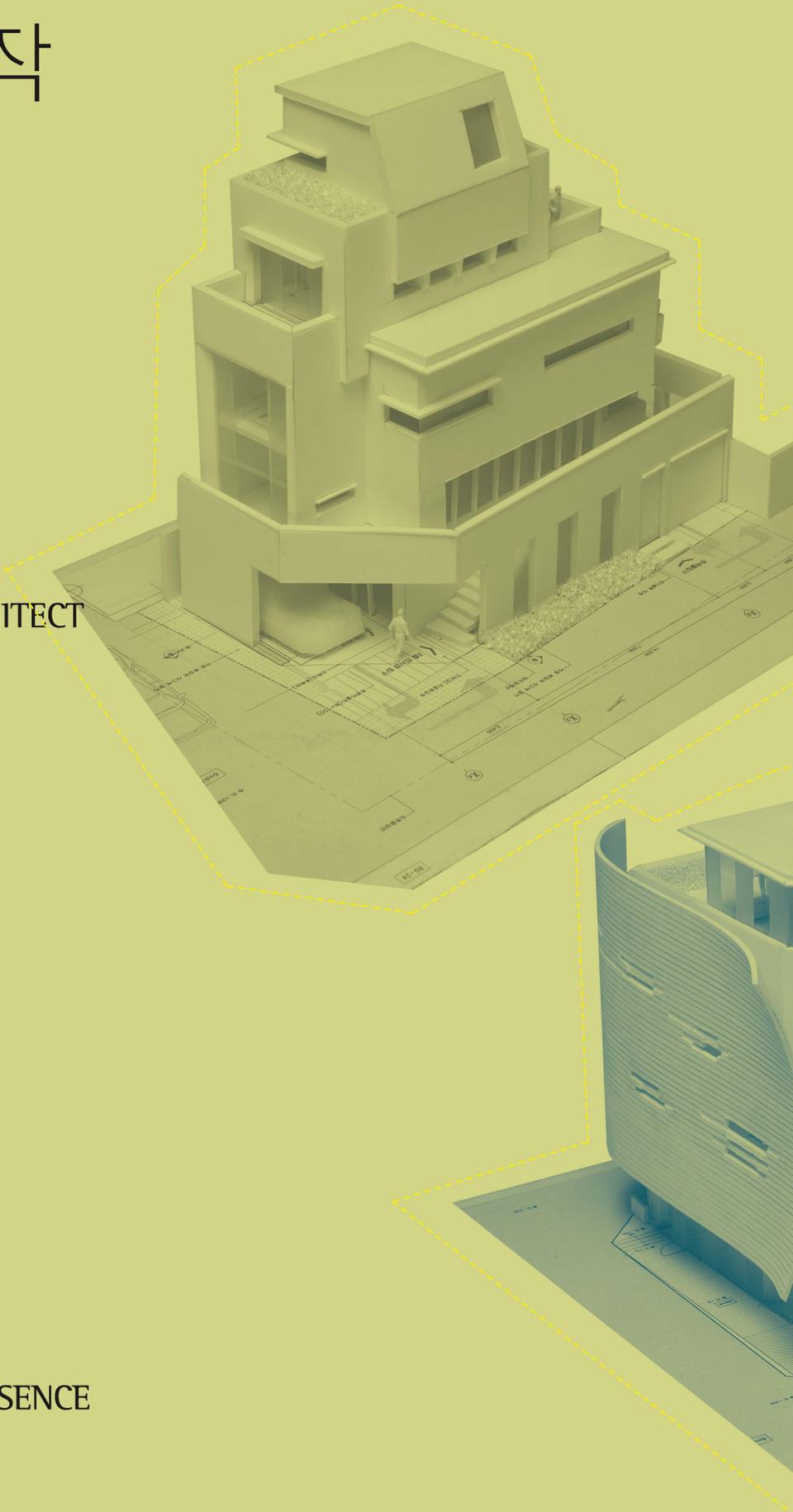
디리쉬 _ 다이닝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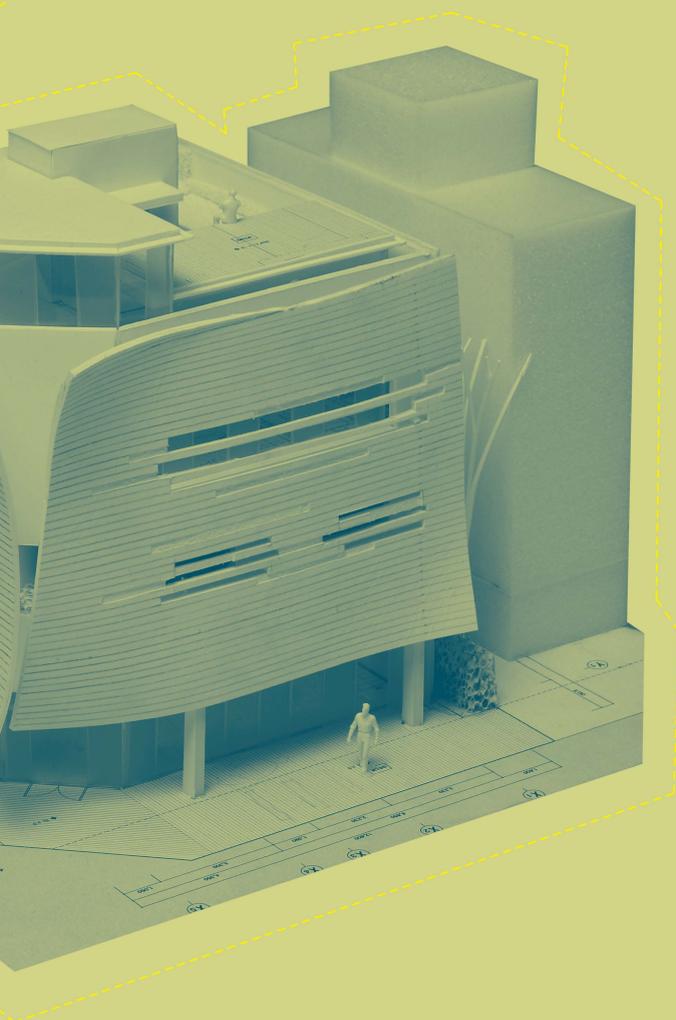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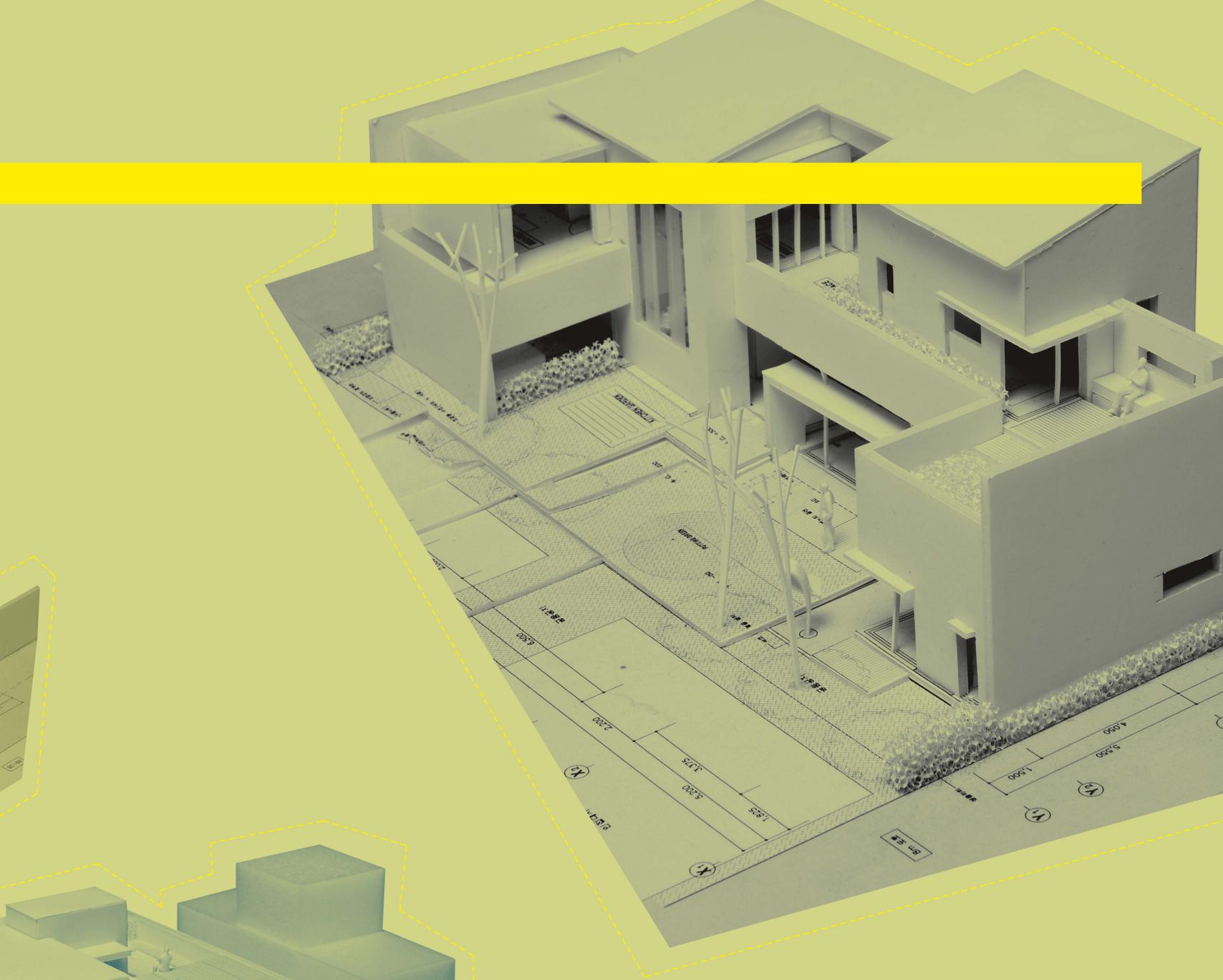
D-LISH

INTERVIEW

본질에서 가능성을 탐색하다

TO EXPLORE THE POSSIBILITY IN ESSENCE





건축가 유주현 씨는 5년여의 실무 기간을 거치기는 했지만, 자신의 이름으로 건축사무소를 열고 작업을 한 지는 이제 2년차인, 그야말로 신진 건축가이다. 자신만의 건축을 하겠다는 열망에서 사무실을 연 것은 분명하나, 지금은 내재된 건축적 탐닉과 조형 의지를 표현하기 보다는 도시의 콘텍스트와 사용자를 충분히 배려한 건축 작업들로 기본기를 다지고 있다.

지금까지 진행한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주거 건축이다. 주거 본연의 목적만을 위한 단독 주택부터 조각가의 아틀리에와 주거가 함께하는 스튜디오 하우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과 임대 주택, 건축주의 주거 공간이 한데 어우러진 점포주택 등 그 성격과 프로그램은 조금씩 다르다. 그리고 판교 신도시부터 통인동의 오래된 주거 지역까지 건축이 위치하는 도시적 맥락도 극과 극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차이가 있다. 이런 조건들이 그에게는 계획의 절대적 단서가 된다. 물론 이를 바탕으로 한 건축 작업은 기본적으로 보편적인 방식으로, 특별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건축가의 욕심과 스타일을 억누르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해법만을 끝까지 건축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노력은 말처럼 쉽지만은 않다.

지금 그가 하는 건축이 끝까지 '유주현 건축' 이 될 가능성을 적다. 대신 '유주현 건축'의 충분한 밑바탕은 될 것이다. 앞으로 그의 건축이 어떻게 진화할지 관심어린 눈으로 지켜볼 일이다. 진행 박은숙 기자

여행과 건축가의 성장

유 주 현 유주현 건축사무소 소장

많은 건축가들이 건축에 대한 가장 훌륭한 가르침은 “건축여행”이라고 말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건축 실체를 직접 오감으로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건축 교육은 없으리라 확신한다. 조각을 고등학교 시절부터 공부한 내가 건축을 하게 된 계기도 훌쩍 떠난 “여행” 때문이었다. 군 제대 후 해외여행을 떠났고, 친구의 초대로 뉴욕의 맨해튼을 방문했다. 그곳에서 마천루로 가득한 도시를 보며 꽤 흥분했다. 특히 한 건축 전시를 보고 건축과 조각 사이의 경계를 의심하게 되었다. 그것은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진행했던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에 관한 건축 전시였다. 1/30 정도 스케일의 모형과 건축 전반에 대한 정보가 보기 좋게 전시되어 있었는데, 조각을 전공한 내게 그것은 건축이기보다 조각에 가까운 것이었다. 그 전시를 본 후 건축과 조각의 경계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여행 내내 건축을 유심히 보게 되었다. 이후 점점 건축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결국 건축에 눈을 뜨게 되었다. 이렇게 건축과 나는 “조형”이라는 주제로 첫 인연을 맺었다. 귀국 후 모교에서 미술과 건축을 같이 공부하기로 마음먹고 미술대학과 건축대학에서 공간과 조형에 탐닉했다.

공간과 조형에 대한 여러 고민들은 내게 또 다른 여행의 기회를 주었다. 13회 김태수 해외건축여행 장학제에 선발되어 유럽을 여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건축과 인연을 맺어준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과 학창 시절 책으로 보아 피상적으로 알던 건축들을 하나하나 답사할 수 있었다. 여행을 통해 얻은 깨달음 중 가장 소중한 것은 건축의 허와 실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건축 답사는 책과 달리 도시 조직 안에서 건축과 사람을 함께 볼 수 있기에 실존적이고 정직하다. 여행 내내 기대와 흥분, 때로는 실망을 하며 건축의 여기저기를 더듬었다. 피상적 이미지와 실존적 존재의 건축 사이의 간극은 생각보다 컸으며, 기대 이상의 감동을 받기도 했고 때론 공허함에 놀라기도 하였다. 그 감동과 공허함은 내가 알고 있던 건축에 의심을 갖게 했고, 다시 건축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됐다. 4개월의 건축

기행으로 불안정하고 흐릿하지만 좋은 건축에 대한 신념이 조금씩 생겼는데, 지금은 그 신념들을 바탕으로 집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고 있다.

여행을 통해 얻은 좋은 추억들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모두 어떤 장소 혹은 공간과 사람들로 구성된다. 좋은 추억 속에 건축은 그저 그 관계들을 기분 좋게 담아 주는 역할을 하며 바탕으로 존재한다. 비록 그 건축이 화려하고 세련되지 않아도 당시의 요구되는 건축의 목적을 완벽하게 수행하기에 그 안의 사람들은 충분히 행복하며 좋은 추억을 만들어 간다. 이렇게 오랜 시간 지속되어 온 건축가 없는 토속적 건축은 사람과 땅에 대한 진정성 있는 이해를 갖고 그 기능을 충실히 한다. 그러기에 유행에 휩쓸리지 않고 묵묵히 존재하며 사람들에게 좋은 건축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작업을 통해 화려한 건축조형과 유행하는 건축 이론 및 세련된 디테일 이전에 건축이 성립되는 중요한 조건인 땅(환경)과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이에 대한 현실적이고 진정성 있는 대응을 하고자 한다.

건축은 시대의 가치, 도시 문화적 맥락 그리고 삶과 직결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의해 만들어 지는 복잡한 현실 그 자체이다. 도시 조직의 한 부분으로 존재하는 건강한 건축은 이 모든 조건들에 대해 건축가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답을 낸 결과물이다. 그 결과물은 단순히 조형물이 아니라 건축가의 치열함이 만들어 낸 위계의 “질서체계”이다. 질서는 가치의 위계를 만들어 내고 그 위계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규정하는데, 좋은 건축은 공간과 삶의 상호 연결 고리를 긍정적으로 만들어 나간다. 결국 건축 주변에 있는 다양한 문맥(콘텍스트)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명확한 해석이 좋은 건축의 시작이 되며 설계의 중요한 열쇠가 된다. 요즘 의식적으로 견지하는 태도는 건축가인 “나”를 잠시 내려놓는 것이다. 자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조건들을 좀 더 세심하고 정확하게 받아들이기 위해 잠시 갖고 있던 건축적 탐닉과

조형 의지, 프로그램에 대한 선입견을 옆에 내려 두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조건들을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조건에 대한 판단 근거를 내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조건과 주변 문맥에서 찾아 각각의 프로젝트마다 그에 맞는 적절한 결과물을 만들어 내 일정한 스타일에 얽매이지 않기 위함이다. 결과물이 보여 주는 조형성은 건축가의 조형 의지가 아닌 건축적 문맥과 공간 논리에 맞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구조의 조형이 되어, 건축가의 스타일로 정리되기 전에 건축적 아이디어로 도시와 먼저 소통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그래서 건축이 조형 논리에 얽매어 창의성과 변화의 한계를 스스로 만들지 않을까 늘 경계한다. 그리고 나의 경우 조각을 먼저 접했기에 조형적 열망이 늘 잠재해 있고, 이것이 건축을 할 때 자칫 독이 될 수 있기에 이를 늘 경계한다. 이 경계심으로부터 해방되는 날 “나는 자유롭다.”라고 말할 수 있으리라.

구조와 재료는 공간 조직을 구성하고 표현하는 중요한 요소로 건축의 주된 관심사 중 하나이다. 공간의 볼륨과 성격에 따라 재료와 구조 디자인을 결정하는데, 가능한 구조 미학이 최대한 구현되어 건축 입면과 내부 마감의 일부가 되도록 한다. 최근 준공된 판교522 단독주택은 공용 공간의 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11미터가 넘는 스펠의 철근콘크리트 보를 사용하였는데 이를 그대로 입면으로 정리했다. 통인동 스튜디오 하우스는 구도심의 문맥을 고려해 규모에 비해 매스의 분절을 많이 하였고 층고도 2.7미터로 낮게 계획했다. 슬래브는 그대로 노출시키고 보를 외곽으로만 보내 낮은 층고임에도 2.4미터의 내부 천장고를 확보했다. 이렇게 공간과 구조가 유기적으로 조율되어 하나의 통일된 건축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재료는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서 사용하는데 특별히 선호하는 재료가 있지는 않다. 다만 프로젝트의 성격과 건축이 놓이는 도시적 문맥에 맞춰 재료

를 선택한다. 늘 관심을 갖고 고민하는 부분은 재료의 종류보다 재료의 표현이다. 공업화, 대량생산 시대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건축가가 선택할 수 있는 재료의 종류는 그리 많지 않기에 이는 당연한 연원이다. 모든 재료가 갖고 있는 본연의 매력을 건축의 성격에 맞춰 적절히 변형해 건축의 일부로 표현할 때 재료는 새롭게 변신한다. 결국 친숙한 재료를 상황에 맞게 독특한 디테일로 풀어내는 치열한 노력이 집의 개성을 만들어 낸다. 판교 주택들과 통인동 스튜디오 하우스에는 벽돌이라는 친숙한 재료를 사용하였는데, 각각의 건축적 문맥에 맞춰 벽돌을 선정하고 디테일을 풀었다. 판교6441 점포주택은 외부 가벽에 벽돌을 패넬화하여 땅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였다. 쌓아 올리는 재료의 성격을 토틀하게 바꿔, 친숙하지만 진취적이고 새롭게 보이도록 하여 상가가 있는 집의 상징적인 표정을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집들의 표정이 각기 다르고 도시와 관계 맺기 하는 방식도 달라졌다.

올해 이제까지 해온 작업을 통해 ‘장프루베-김중업 장학제’에 선발되어 또다시 짧은 여행을 하게 되었다. 프랑스의 자크 페리에 건축사무소에서 잠시 일을 하게 되었는데, 해외 사무실에서의 새로운 경험이 나의 건축에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하고 또 기대된다. 좋은 건축에 대한 신념이 조금씩 더 공고해 지길 바란다.

유주현 씨는 서울예술고등학교 미술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미술대학 조소과와 건축대학 건축학과를 졸업했다. 2005년부터 건축사무소 아틀리에17에서 실무를 쌓았으며, 2010년부터 유주현 건축사무소를 열어 운영하고 있다. 2004년 13회 김태수 해외건축여행 장학제와 2011년 장프루베-김중업 장학제에 선발되었으며, 다수의 공모전에 입상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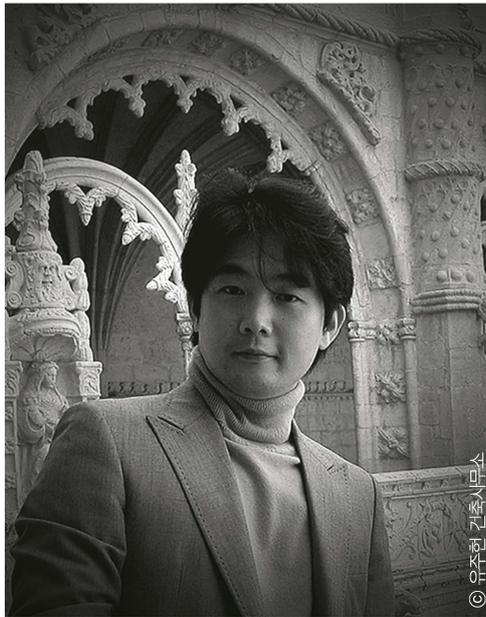
본질에서 가능성을 탐색하다

유주현 소장은 작년 3월에 자신의 이름으로 건축사무소를 열고 작업을 하나하나 구현하고 있는 30대 중반의 신진 건축가다. 올 6월에는 중랑천 변에 위치한 오래된 주택을 리모델링하여 그곳에서 자신만의 고유한 건축언어를 찾아 다양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그의 베이스캠프를 찾아 건축에 대한 그의 담백한 생각과 가능성을 들어 보았다.

유주현 유주현 건축사무소 소장

유주현 소장은 조각을 공부하던 미술학도였다. 어려서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고 또 손재주를 인정받기도 했지만,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알게 된 예술고등학교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로 미술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예고 입학 이후 1년 동안 한국화, 서양화, 조소, 디자인 등의 실기 수업을 두루 들으며 구체적인 전공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 평면보다는 입체 조형이 훨씬 더 실존적으로 느껴졌고 예술과 가깝다는 막연한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손으로 무언가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즐거웠다. 그가 결정적으로 조각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된 순간은 전시 준비를 위한 밤샘 작업 중이었다고 한다. 예고에는 1년에 한 번 학생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전시가 있는데, 그 전시를 위해 밤새 땀을 흘리며 한 토르소 작업에서 맞본 희열은 지금까지도 그의 기억에 강하게 남아 있으며, 그날 밤은 기분 좋은 밤으로 추억된다.

그렇게 조각가의 길을 걷고 있던 그가 건축가로 전향하게 된 것은, 앞서 예세이에서 밝혔듯 군대를 제대한 이후 떠난 여행에서였다. 1년을 일정으로 영어 공부를 겸한 북미 여행을 했는데, 뉴욕에서 본 구겐하임 미술관의 건축 전시에 매료된 것이다. 프랭크 게리가 디자인한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에 관한 건축 전시를 보며 그 조형성에 매력을 느꼈고 충분히 감동적인 모형을 보며 건축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길로 미술관에서 두 블록 떨어진 거리의 시립도서관에 들러 그가 재학 중이던 서울대학교의 건축학과 홈페이지를 찾았고, 당시 학과장으로 재임하던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냈다고 한다. 미술관에서 느낀 감흥과 함께 앞으로 건축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내용이었다.



유주현 건축사무소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때 미술관에서 건축 전시를 보지 않았더라면 지금처럼 건축가가 되지는 않았을 지도 모를 일이라고 그는 말한다. 항상 건축 속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아트위크 차원의 건축을 한국에서 경험할 기회는 거의 없었고, 모더니즘을 기반으로 한 상징적인 건축물들을 경험하며 오히려 건축에 대한 비판적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여행을 통해 다양한 건축들을 접하게 되면서, 단순한 흥미와 관심을 넘어 '내가 할 일'이라는 궁극의 지향점으로 건축을 바라보게 된 것이다.

여행 이후 그는 미술과 건축을 함께 전공하면서 그 경계에 탐닉하게 되었다. "건축학과 수업과 조소과 수업을 함께 들으면 시너지가 분명 있다. 나는 최소한 건축을 공부하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공간이나 조형을 직접 만들어

보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건축 수업만 듣다 보면 만든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과 장벽이 생각보다 높고 마땅히 작업할 장소도 없어 접근성이 좋지 않다. 그런데 나는 그것이 가능했다. 내가 구상하던 조형을 흙으로도, 금속으로도 만들 수 있었다. 그래서 양쪽의 수업 내용을 접목시켜 공간과 조형을 다양하게 실험해 볼 수 있었다."

그가 건축을 재미있게 공부한 배경에는 좋은 건축 선생들과의 만남도 있다. 첫 설계 스튜디오의 튜터로 권문성 교수를 만났는데, 막연했던 건축을 쉬운 언어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어 건축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그것을 인연으로 이후 실무까지 권 교수의 건축사무소에서 시작하게 되었다.

실무를 시작하고 2년 반 동안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다고 한



© 유주현 건축사무소

1



© 유주현 건축사무소

2



© 유주현 건축사무소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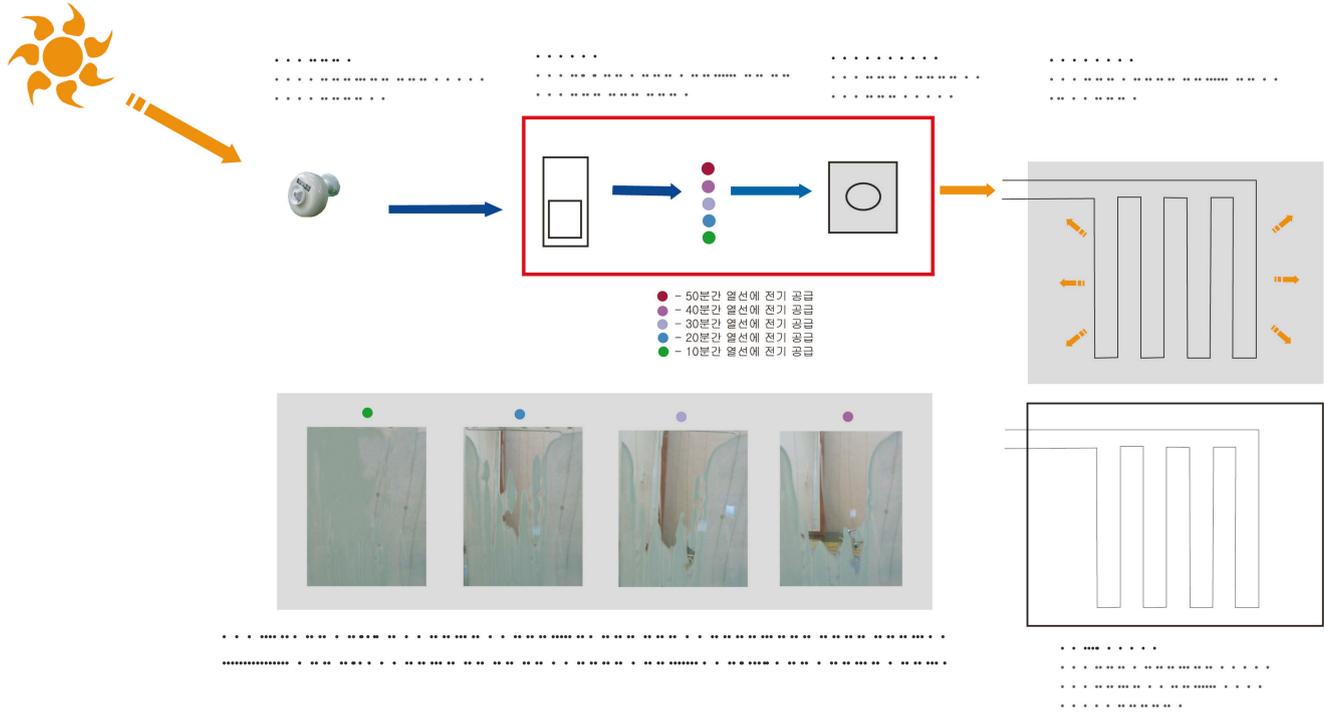
1 올 봄에 유주현 소장이 리모델링한 사무소의 전경 2 사무실 내부의 회의실 모습. 전면에 중량천이 흐르고 있다. 3 루프 테라스에 서면 관악산부터 남산, 북한산, 도봉산 등 서울 시내 산들이 다 보이고 전망이 좋아 주로 외부 손님과의 미팅을 여기서 진행한다.

다. 그가 대학 시절 관심을 가졌던 건축에서의 조형적 가능성보다는 건축의 본질 자체에 집중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소과와 건축학과의 졸업 작품으로 응모했던 '김태수 해외건축여행 장학제'에 선발되어 떠난 4개월여의 유럽 여행은, 그가 건축에 대해 갖고 있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뿐 아니라 조각과 건축의 차이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실무를 9개월 가까이 하고 떠난 여행에서 그의 눈에 읽힌 건축은 이전과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왜냐하면 그는 더 이상 소비자가 아닌 건축 생산자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건축가가 어떤 논리와 기준으로 설계를 했는지를 유심히 살피게 되었다. 건축이 즐기는 대상이 아니라, 분석의 대상이 된 것이다. 그가 찾은 건축물 중 공간의 질서가 사용자를 위한다기보다 순수하게 조형을 위한 집들이 예상외로 많았고, 그런 데서 오는 건축의 공허감도 컸다. 반면 그가 좋은 건축이라고 생각하게 된 집들은 의외로 조형이 화려한 집들이 아니었다. 자연과 사용자를 배려하여 섬세하게 계획된 북유럽의 집들이 그러했고, 스페인의 건축들도 인상적이었다. 특히 스페인은 이후 신흥여행을 그 코스 그대로 한 달 가까이 했다고 한다.

기존의 건축사무소들이 규모를 줄이거나 폐업을 선언할 만큼 건축계의 경

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을 오픈한 동기는 자신만의 것을 해보고자 하는 열망이 더 컸기 때문이다. '물고기에 따라서 어항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항에 따라서 물고기의 크기가 결정된다.'는 믿음이 결정적이었다. 물론 프로젝트를 어떻게 수주할 것인지에 대한 걱정은 많았다. 하지만 스스로 '운이 좋아서'라고 생각할 만큼 일면식도 없는 건축주들이 자신들의 집을 설계해 달라며 찾아왔다. 최근 진행하고 있는 내곡동 주택의 경우, 건축주가 현재 판교522 단독주택 근처의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한다. 판교테크노밸리에 사무실이 있어 자전거로 매일 출퇴근을 하는데, 그 길목에 그가 설계한 주택이 있다. 시공 첫 단계인 터파기부터 준공되는 모습까지 공사 전 과정을 출퇴근을 하며 지켜본 것이다. 그리고는 어느 날 판교 주택의 발을 돌려 건축가가 누구인지 묻고는 찾아왔다고 한다. 사실 많은 신진 건축가들이 고민하는 부분은 일을 어떻게 수주할 것인가이다. 하지만 유 소장이 이 부분에 대해 조금 확신을 갖게 된 것은 '좋은 집을 잘 지으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계속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몸소 경험을 통해 느끼면서부터다.

작년 3월 논현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의 이름을 내건 건축사무소를 시작한 그는, 올 3월 중량천 번의 한 주택가에 위치한 노후 주택을 매입한 후 3개월의 리모델링을 거쳐 베이스캠프를 마련했다. 이 동네에 자리 잡게 된 언



조소과 졸업 작품이자 '김태수 해외건축여행 장학제' 공모작, 서울대학교 예술대학의 방치된 한 외부 공간에 설치한 조형 물로, 공간에 새로운 자극과 활력을 주고자 계획했다. 버려진 공간에 장소성을 부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개입으로 시시각각 변하는 햇빛에 반응하는 유리벽을 제안했다. 유리벽 내부에 파라핀이 있어 햇빛의 자극에 반응하며 투명도가 변해 공간이 닫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한다. 조각과 건축의 경계에 있는 설치 작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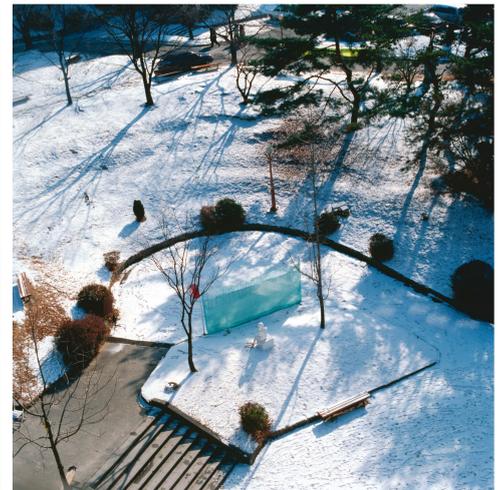
유를 물으니, 한 정유회사의 '리터의 힘'이라는 광고 카피처럼 집에서 리터의 기름으로 올 수 있는 거리라는 점과 좋아하는 물을 가까이서 바라보며 작업할 수 있기 때문이란다. 리모델링 작업 초기에는 동네 주민들의 냉담한 반응에 부담이 많았으나, 지금은 집 구경을 하러 들르기도 하고 리모델링 문의를 하러 오는 주민들도 있어 골목에서 제법 인기 있는 집이 되었다고 한다.

유주현 소장은 현재 자신 안에 내재되어 있는 강한 조형 의지를 경계하며 디자인에 관한 모든 근거를 주어진 조건 등 외부에서 찾으려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가 하는 건축을 보고 조형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전한다. 이미 체화된 감각이라 스스로 아무리 조심을 해도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건축의 본질에 더 다가서기 위해 최대한 조형을 경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항상 스스로를 환기시키고 있다.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안전기는 그냥 특 던져도 모든 것을 충족하는 그런 순간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말이다.

현재 그가 건축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파라메트릭 디자인이다. 판교6441 점포주택의 경우가 그 관심의 결과인데, 눈에 보이는 디자인만이 아니라 그 이면의 시스템에 대한 관심까지다. 실제 시공에서도 유효해야 건축가와 시공사 그리고 건축주가 서로 좋은 결과를 얻기 때문에 건축가가 특히 거기에 대해 충분한 배려를 해야 한다. 한국에서 건축가에게 요구되는 능력 중의 하나가 하이테크를 로테크로 변환하는 것이라고 그는 강조한다. 새로운 것을 하고 싶어도 시공이 그것을 못 따라주면 그것은 페이퍼 아키텍처에 머물고 말기 때문이다. 특히 판교 점포주택의 경우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집이라 하이테크로 시공을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설득력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비용을 지불하고 프로그래머의 도움을 받아서 파라메트릭 알고리즘을 짰다. 물론 디테일을 푸는 것은 건축가의 몫이었지만, 원하는 입면을 만들어 클릭만 하면 패널이 몇 장 필요한지에 대한 결과가 즉시 나왔다. 파라메트릭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지만, 그가 생각하는 것은 레고 블록과 같



설치 전



설치 후

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의 모듈이 수없이 많은 형태를 만들어 줄 수 있어야 파라메트릭 디자인이 비로소 그 빛을 발하게 된다는 이야기다.

그가 사무실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진행한 프로젝트들은 모두 시공되었거나, 시공 중이거나, 시공을 앞두고 있다. 즉 계획만으로 종이 위에만 남아 있는 프로젝트가 없다. 또한 모든 프로젝트들이 특별한 변경 없이 초기 계획안 그대로 실시설계까지 진행됐다. 대신 의뢰를 받은 후 계획안을 들고 첫 미팅을 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짧지 않았다. 그는 겸손하게 운이 좋아서라고 표현했지만, 그가 건축에 접근하는 방법이나 건축주에 대한 배려에서 보이는 진심이 그의 준비된 운이 아닐까 한다.

인터뷰 · 정리 박은숙 기자